

광주시-인근 5개 시군 남도관광 활성화 손잡다

〈나주·담양·화순·장성·함평〉

국제행사·축제 입장권 예매
문화전당 연계 관광상품 운영
문화예술 공연단체 상호교류

제 공동홍보와 입장권 예매와 관람지원 ▲ 문화전당을 기·종점으로 광주도심 역사문화관광자원과 인접 시군의 자연관광을 연계한 남도관광상품 운영 ▲ 문화예술공연단체 상호교류 공연 등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와 인접 5개 시·군은 사회적 문화적으로 한 형제”라

면서 “올해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비롯한 담양의 세계대나무박물관, 나주의 국제농업박람회 등 지자체별 축제가 많은 만큼 상호 지원·협력을 통해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전남권 단체장들

도 “남도를 찾는 관광객이 아름다운 자연, 맛과 멋, 넉넉함을 소중히 추억으로 간직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하면 한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광주와 전남이 관광분야에서 상생 발전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와 나주, 담양군, 화순군, 함평군, 장성군의 문화관광자원의 지원·협력 협약식이 24일 오전 윤장현 광주시장과 각 자치단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홍영민 함평부군수, 최형식 담양군수, 윤장현 광주시장, 유두석 장성군수, 구충근 화순군수, 강인규 나주시장.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시와 인접 5개 시·군이 남도관광 활성화를 위해 상생의 손을 잡았다.

광주시와 나주, 담양, 화순, 장성, 함평 등 전남 5개 시·군은 24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대규모 국제행사 및 지역축제 등의 지원·협력을 통한 남도관광 발전을 목표로 ‘문화관광 지원·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윤장현 광주시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최형식 담양군수, 구충근 화순군수, 유두석 장성군수, 홍영민 함평부군수가 참석했다.

이들은 협약식에서 대규모 국제행사와 지역축제 등을 상호 지원·협력하고 남도관광 활성화에 함께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9월 개관을 계기로 지역 관광활성화를 위한 공동 상품 개발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 대규모 국제행사·지역축

“원격 의료는 공공의료 발전에 좋은 수단”

정진엽 장관 후보자 청문회... 제자 논문표절 의혹 부인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4일 “원격의료는 공공의료를 수행하는 유용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또 “의료체계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는 우수 의료인력과 IT를 융합해 의료서비스가 닿지 않는 도서지역, 군부대, 해양, 교정시설 등에 의료서비스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며 “의료의 공공성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후보자는 “대도시 등 의료기관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는 원격진료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도서지역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그동안 원격의료에 필요한 고가의 의료기기 구매비용이 환자에게 전가되면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이유 등에서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해왔다.

법안작성 설립 사업에 대해서도 “올은 방향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의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

와 관련해서는, “정보공개가 지체된 일은 잘못된 일로, 이런 일이 생기면 지나칠 정도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보건료의 분야에 비해 복지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받았다. 그는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복지문제에 대한 비전문가여서 상황 파악이 잘 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문회 준비기간 열심히 공부했는데, 범위가 워낙 넓어 아직 부족하다”고 답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 2007년 정형외과학회지에 기고한 논문이 제자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표절은 아니다.

행정 착오로 학생의 이름이 누락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용의 의원은 “감사원에 따르면 후보자가 원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분당서울대병원은 생화학분석기를 수의계약으로 구매하면서 회계규정을 어기고 가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다른 병원들보다 1억원 이상 비싸게 구매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당시 해당 생화학분석기 구매대행업체의 비상장주식 6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위는 25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청문보고서 채택을 시도한다.

정치권에서는 후보자의 심각한 도덕적 결함이 발견된 것은 아니라는 점 등에서 야당이 부적절 의견을 명기하더라도 보고서 채택에는 협조해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불법정치자금 수수’ 한명숙 전 총리 수감

“저는 결백, 굴복하지 않겠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이 확정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24일 오후 서울 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0일 오후 대법

원에서 징역 2년형이 최종 선고된 이후 4일 만이다.

이로써 최초의 여성총리를 지낸 한 전 총리는 헌정사상 최초로 영어(囹圄)의 몸이 된 전직 총리라는 ‘불명예 기록’도 남기

게 됐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수감에 앞서 재판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들과 한 전 총리 지지자들은 이날 서울구치소 앞에 모여 눈물 속에 한 전 총리를 배웅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열린 ‘진실 배움’ 행사에서 “저는 결백하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다”며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 그러

면서 “울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여러분들의 체온과 위로를 느끼며 들어갈겠다”며 결기에 찬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또한 “진실은 그 시대에 금방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 때 언제든지 밝혀진다”며 “저는 안에서, 여러분은 밖에서 진실이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어내자”고 말했다. /연합뉴스

“지자체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 유지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국제청 일원화 철회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은) 24일 정부의 지방소득세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경정 권한을 국제청으로 일원화하는 2015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철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는 “지방소득세가 2014년 독립세로 전환하면서 독자적인 세목으로 발전하고 지방재정에 안정적으로 기여해 왔는데, 시행된 지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기업들의 요구로 세무조사권과 과세표준 결정·경정 권한을 박탈하는 것은 중앙집권적 정책 결정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특히 “지방소득세의 세무조사권 일원화 방안에 대해 지방세목임에도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의견수렴이나 동의 절차를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세법개정안을 발표,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했다”면서 이의 철회와 함께 중부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우려 해소를 위해 중앙·지방의 상호 협력을 제안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국교총, 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 협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이하 교총)와 광주시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류종성)가 10월 열리는 전남국제농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전남도와 협력하기로 했다.

안양옥 교총회장은 24일 오후 전남도청에서 농업박람회 조직위원장인 이낙연 전남지사와 업무협약(MOU)을 하고 국제농업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상호 교류와 협력 증진에 노력하기로 했다.

한국교총은 전국 초·중·고·대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박람회를 홍보하고, 학생들의 현장 체험학습 활동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람회 조직위는 교원과 학생들의 박람회 관람 및 체험학습 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조직위는 업무협약으로 학생단체 관람은 청소년·어린이 단체할인 가격에서 1000원을 추가 할인할 계획이다.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10월15일부터 11월1일까지 나주 산포면 전남도농업기술원 일원에서 열린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다문화 관련 법안 여당이 더 적극 발의”

민태은·오혜진 교수 분석

대표발의 35명중 22명 여당

지난 10여 년간 국내 다문화 가족 관련 법안 발의에 여당이 야당보다 더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분석됐다.

민태은 고려대 책임연구원(정치학)과 오혜진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연구원은 24일 오후 숙명여대 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다문화 한국 10년의 정책과 실천 방안’이라는 주제의 학술대회에서 이 같은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이들 연구원은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현재 19대 국회까지 다문화 가족지원법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관련 법을 발의한 국회의원 63명을 분석했다.

다문화 가족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한 의원 35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22명이 여당으로 나타났다. 발의 법안 47건 가운데 여당 의원 법안은 70%인 33건에 달했다.

연구팀은 이같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정부 주도의 다문화 정책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법제화가 미비한 다문화 가

족 관련 정책의 현실적 필요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주도적으로 다문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복잡한 정부 입법절차 대신 여당 의원이 대신 발의하는 형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반면 외국인 근로자 고용 법안은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야당이 더 많았다. 발의 의원 28명 가운데 17명이 야당 소속이었고, 발의 법안 30건 중 18건(60%)이 야당의원 발의였다.

정당 성향을 살펴보면 보수 성향 정당 이 두 법안 모두에서 발의 의원과 건수가 많았다.

연구팀은 “조심스럽지만, 한국은 미국과 달리 보수당이 이민정책에서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민자 혹은 다문화 관련 정책을 보수당이 선점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밖에 지역구의 결혼이주자 수가 전국 평균보다 많이 분포한 곳을 지역구로 둔 의원이 다문화 가족 지원 법안을 더 많이 발의했고, 조선, 비례대표, 여성, 50대 의원이 더 관심을 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의료광고심의필 제140611-중-59153호

밝은광주안과

축 건물 전층 안과병원운영

- 2년 연속 대한민국 의료서비스 대상
- 라식수술실 4곳 및 레이저 7대 보유
- 안구건조증 거의 없는 스마일 수술 시행
- ‘레인트롭’ 노안시력 교정술 시행

백내장 4無 수술
無통증·無출혈·無봉합·無입원 수술가능
백내장+노안+난시를 단한번의 수술로 해결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신세계백화점

밝은광주안과

의료광고심의필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기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